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4.(화) 16:00 (2026. 11. 25.(수) 조간)

고용노동부와 전국 상공회의소,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힘 모으기로!

- 김영훈 장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관계자와 간담회
- 청년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월 24일(화) 16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영훈 장관과 전국 지역상공회의소(이하 “지역상의”) 회장,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지역상의로부터 지역 일자리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의 추진과 활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5극 3특 성장엔진, 서남권 반도체 팹 건설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등 국민주권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정책들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역상의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청년에게는 실무 역량과 성장 경험을 쌓을 기회를, 기업에는 미래 인재 양성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K-뉴딜 아카데미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지역의 대표기업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해 청년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K-뉴딜 아카데미’를 금년 1만명에서 내년에는 5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27년 정부예산안 기준). 이에 더 많은 지역 대표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지역상의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SK AX는 광주에서, 정림건축은 천안에서 K-뉴딜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지역 청년의 성장을 지원한 경험을 공유했다.

▲ **K-뉴딜 아카데미**: <’27안> 4,895억(1만명→5만명, 대기업, 지역별·업종별 대표기업 주도 청년 역량향상 지원 프로그램)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7년 일자리 예산(안)과 함께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였다. 대표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청년의 취업과 근속을 돕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일경험’ 사업,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과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 추진 상황도 공유하였다.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6> 9,080억 → <’27안> 9,012억
  ↳ 지원 인원 확대(10.5만명→13만명), 청년 지원금 확대 2,116억(+1,222억)
- ▲ **청년 일경험 지원**: <’26> 2,076억 → <’27안> 2,239억(+163억, 3.9만명)
  ↳ 인턴형(2.6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신설맞춤지원형(0.3만명)
- ▲ **일자리이음프로젝트**: <’27안> 810억(광역 4개소, 기초 10개소, 지역·산업위기 등 9개소)
- ▲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27안> 250억(12개소, 지방정부 공모사업)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지역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지역이 산다”라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상공회의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라며, “전국 지역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청년 인력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하였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지역기업이 K-뉴딜 아카데미 등 일자리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공회의소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2. 말씀자료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044-202-7210)
		담당자	사무관	황종호 (044-202-72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행사 개요**

□ 목적

○ 지역상의와 고용정책 및 일자리 사업을 공유하고, K-뉴딜 아카데미 등 지역 기업 참여 확산 협력 요청

○ 지역 일자리 여건에 대한 현장 인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현장의견 청취

□ **일시** : ’26.11.24.(화) 16:00～17:1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지하 2층)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고용정책실장代(노동시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청년고용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장 등

○ **(상 의)**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및 관계자 등 20여 명

○ **(기 업)**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SK AX, 정림건축)

□ 세부 일정

* 사회 : 대한상의 이상신 실장

시간		주요 일정	비고
16:00~16:10	10′	▸ 인사말씀	장관 → 대구상의
16:10~16:20	10′	▸ 고용정책방향 및 주요 사업	고용정책총괄과장 발표
16:20~16:30	10′	▸ 참여기업 사례 발표	SK AX → 정림건축
16:30~17:00	30′	▸ 자유 논의	참석자 전원
17:00~17:05	5′	▸ 마무리말씀	대전상의 → 장관
17:05~17:10	5′	▸ 폐회 및 기념촬영	

붙임2 **말씀자료** * 실제 현장에서의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인사말씀]

바쁘신 와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상공회의소는
여러 기회, 여러 자리에서 함께해 왔고,
저 역시 대한상의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을 자주 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자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여러분을
뵙게 되어 더욱 뜻깊게 여겨집니다.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작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며 내건 약속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표만 좋아지는 성장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기회를 충분히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는 기업, 인재가 찾아오는 지역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지역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최근 고용 지표는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지역의 공단과 골목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지역이 있고,
청년이 떠난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성장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으로 성장의 축을 넓히고
전국 각 권역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성장의 온기는 지역 곳곳, 모두에게 닿아야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을 아우르는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가 일자리입니다.

현재 관계부처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에서 일할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성장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용정책 소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청년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청년의 실무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두 기업에서 사례를 발표해 주시는 만큼,
잘 들어 보시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키운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을,
청년에게는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과 근속을 돕는
기업과 청년의 상생 사업인 만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AI 전환의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AI라는 큰 파도 앞에 중소기업이 홀로 서지 않도록
전문가가 기업을 찾아가 진단하고,
재직자의 AI 역량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겠습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 충청권에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력 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촘촘히 살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정책은 현장에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대한상의와 지역상의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을 이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지역의 사정과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하고,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겠습니다. 감사합니다.